

2015 정기회원총회



◆ 때: 2015년 1월 27일(목) 오후 7:30

◆ 곳: 함께하는거창 회의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거창

www.gcngo.org

670-8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길 74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1월 27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총 회 순 서

- I부 -

사 회 :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14년 결산보고
- 5.2014년 사업보고
- 6.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 7.2015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8.2015년 예산(안) 보고, 의결
- 9.기타 안건 토의
- 10.폐회선언

- II부 -

내빈인사 및 덕담나누기

어우러지는 발걸음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길



상임대표 이성호

희망찬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15년 새해도 어느덧 1월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때가 되니 '함께하는 세상'도 어김없이 정기 회원총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지루한 일상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앞가림 하나 하기에 힘도 듭니다.

내 가정 하나 꾸려나가기에도 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나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거창'의 구호는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입니다.

산적인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거창이 편가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과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거창 상황에서 '함께하는거창'이 방향을 잘 잡아서 거창이 잘 되도록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정기 회원총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원총회는 3명의 공동대표 임기가 끝나 새로 공동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숙고하셔서 '함께하는거창'을 잘 이끌어갈, 특히나 지역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을 잘 뽑아서 '함께하는거창'의 가야 할 길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같이 갑시다.

2015년 1월 19일

상임대표 이 성 호

감 사 보 고

감사 이상황

감사라는 말보다는 201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작년초 희망 대로 회원님들의 소리 없는 도움과 연대로 함께하는 거창은 2015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후임 김하주 사무차장님께서 공백 없이 함께하는거창을 잘 꾸려오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를 쪼개어 꼼꼼한 기록과 함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남겨 놓아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하게 처리된 업무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창의 1년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함께하는거창 회원님들의 소리 없는 도움과 참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질 행동하는 양식의 전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만 감사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정의를 위해 남모르게 활동하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2014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4년 1월 23일 오후 7:30
2. **회의장소** : 함께하는거창
3. **회의안건** : -.감사보고
 -.2013년 결산보고
 -.2013년 사업보고
 -.2014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2014년 예산(안) 보고, 의결
 -.정관개정, 기타 토의
4. **출석회원** :172명 중 47명(출석 17명, 위임 30명)
5. **회의내용**
 - 이성호 공동대표, 2014년 정기회원총회 개최를 선언하다.
 - 최성식 사무국장 출석 17명, 위임 30명 모두 47명이 참석했음을 보고하다.
 - 정연탁 감사가 2013년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사소한 사항 지적 후 원안대로 채택하다.
 - 2013년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 최성식 사무국장, 2013년 결산보고를 하다.
 장학사업특별회계의 장부상 회계연도(1.1~12.31)와 실제 회계연도
 (3.1~2.28)의 불일치가 거론되었으나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그대로 처리
 하기로 결의하다.
 - 최성식 사무국장, 2013년 사업보고를 하다.

함께하는거창 장학사업, 300억원 규모의 고향의 강 사업 거론하다. 거창 NGO박람회 후 남은 100만원의 자금을 위천천 가동보 반대투쟁에 쓰기로 결정하다. 황점농가주택문제를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했고 함께하는거창과 푸른산내들이 작은 힘을 보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로 평가하다.

○최성식 사무국장, 2014년 사업계획 보고를 하다.

지역신문을 이용한 홍보 보완, 기타모임을 소모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장학사업의 보완(멘토교사 및 후원자와 협의해 장기적 안목 마련) 등을 논의하다. 6.4지방선거에 대비해 타 단체와 연대, 대책 세울 필요 거론. 작은권리에서 경비 부담한 새로운 홈페이지 홍보, 1년에 2~3회 초청강연회 개최, 군의회 감시(방청 등)를 할 필요성 논의.

○최성식 사무국장, 2014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이성호 상임대표가 이임하는 최성식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인사를 하다.

○이성호 공동대표 폐회를 선언하다.

2014년 1월 23일



2014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14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7,301,563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1,2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28,801,563
합 계	30,001,563	합 계	30,001,563

2.2014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사무국)	45,872,774	일반회계(사무국)	42,967,140	일반회계(사무국)	7,301,563
장학사업특별회계	18,501,490	장학사업특별회계	18,850,210	장학사업특별회계	630,293
합 계	64,374,264	합 계	61,817,350	합 계	7,931,856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8,500,000	장 학 금	18,850,000
이자수익	1,490	부대비용	0
전년도 이월금	979,013	세금과 공과금	210
		현 금	630,293
수입합계	19,480,503	지출합계	19,480,503

4.일반회계(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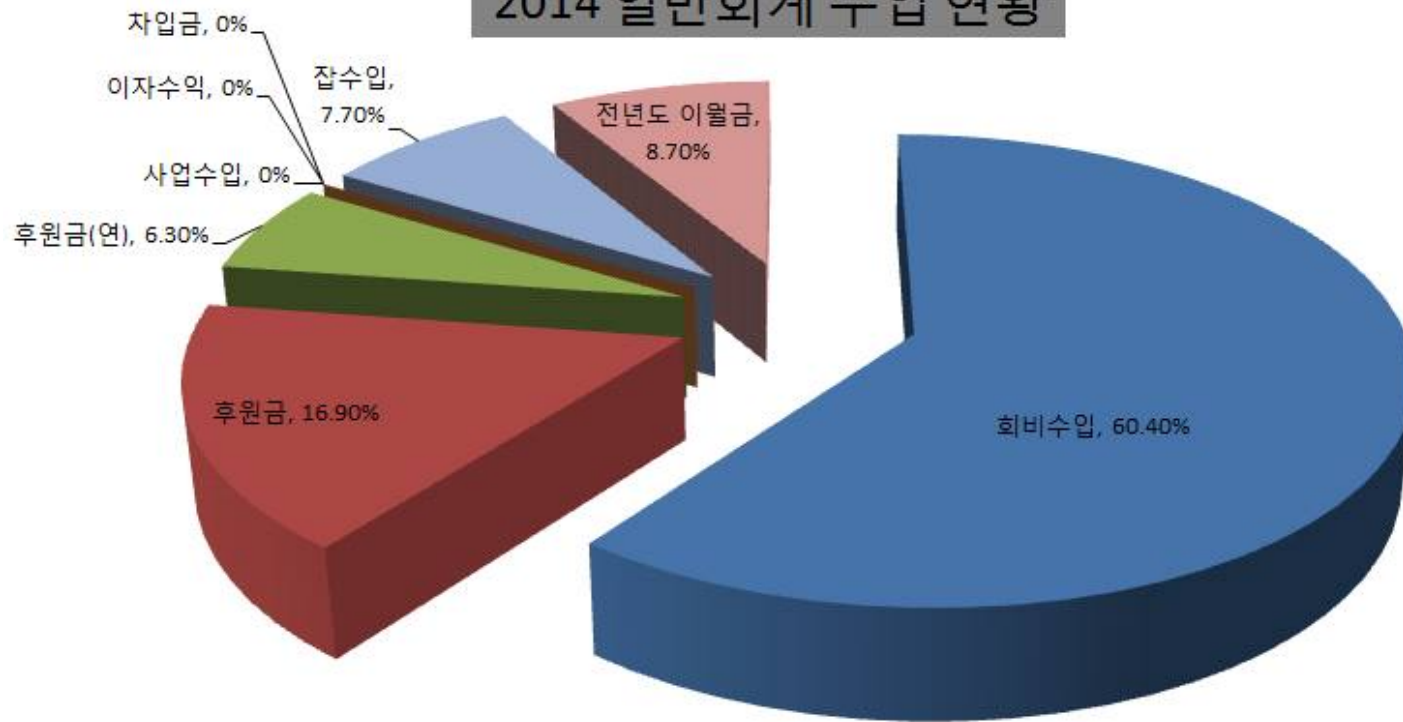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30,345,000	인 건 비	급 여	17,800,000	
	후원금	8,495,000		상여금	0	
	후원금(연구소)	3,180,000		퇴직적립금	1,563,75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복리후생비	2,328,150	
	이자수익	5,474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차입금	0		기기구입비	722,680	
	잡수입	3,847,300		사무용품비	35,700	
	전년도 이월금	4,395,929		세금과 공과금	5,010	
				소모품비	93,900	
				수선비	60,000	
				수도광열비	1,397,670	
				통신비	653,16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462,000
					발 송 비	210,640
					분 담 금	7,585,000
					사 업 비	4,188,700
					회원활동비	1,622,100
					회 의 비	236,140
			출장연수비		0	
			사업외비용	잡 비	201,100	
				예비비	201,440	
				현 금	7,301,563	
수입합계		50,268,703	지출합계		50,268,703	

5. 계정과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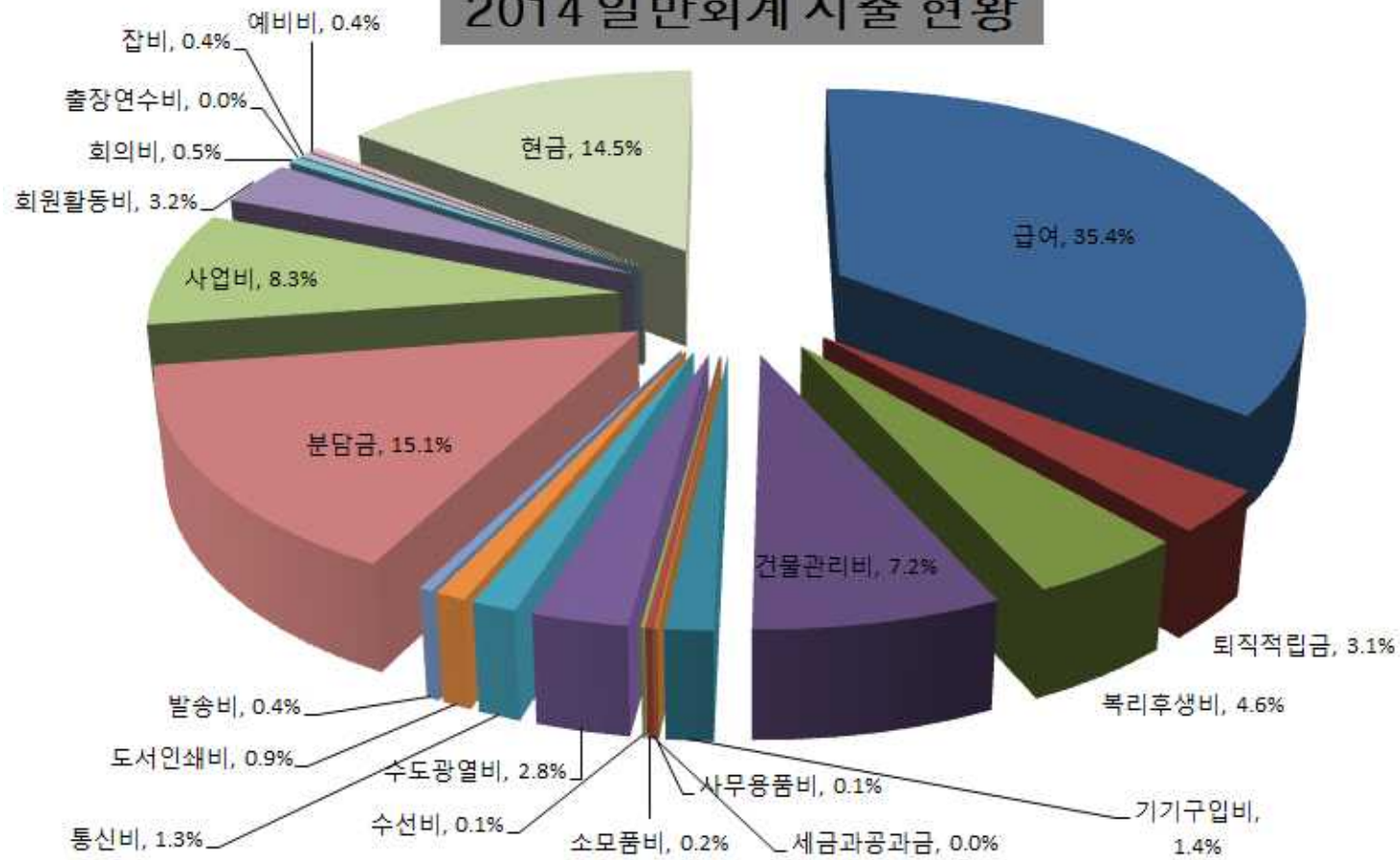
+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2014 일반회계 수입 현황



2014 일반회계 지출 현황



● 자산변동 현황(2014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현 금	4,395,929 (12%)	7,301,573 (24.3%)	+2,905,644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10,729,065 (29.3%)	1,200,000 (4%)	-9,529,065	퇴직적립금	10,729,065 (29.3%)	1,200,000 (4%)	-9,529,065
임대차보증금	21,500,000 (58.7%)	21,500,000 (71.7%)	-	자 본 금	25,895,929 (70.7%)	28,801,573 (96%)	+2,905,644
합 계	36,624,994 (100%)	30,001,573 (100%)	-6,623,421	합 계	36,624,994 (100%)	30,001,573 (100%)	-6,623,421

·현금:12월 31일 기준 보유한 현금.

·적금(퇴직적립금):최성식 사무국장의 퇴직으로 퇴직적립금이 9,529,065원 줄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변동 없습니다.

·퇴직적립금: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자본금:함께하는재단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2013년에 비해 2,905,644원 늘었습니다.



2014년 사업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활동

■ 청소년 장학사업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함께 선생님들이 멘토 역할을 담당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4년에는 28명(중학생 9명, 고등학생 19명)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장학사업 회계는 사무국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예금이자 등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전액 장학사업에만 사용합니다.

■ 가동보 설치 철거를 위한 활동

- 1월 27일 새해 첫 대책회의 개최.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위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실상을 알리고자 현수막 만들어 내걸기로 함.
- 1월 28일 고속도로 입구(2곳), 1교(2곳), 2교(2곳), 3교(1곳), 4교(1곳), 읍사무소 앞(1곳), 거창군청 앞(1곳)에 현수막 게첨.
- 1월 29일 오전 11시 신임 건설과장(김명옥), 담당계장(안장근), 담당주사(김현태) 사무실 방문.

☞건설과장:“다리 난간 등에 내건 현수막들을 정식 게시대로 옮겨 걸어줬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측:“이런 주민 집단민원 사항은 관행적으로 정식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걸어 왔다. 정 그렇다면 거창군청 앞 현수막 하나만 다른 곳에 옮겨 걸겠다.”

- 오후 5시경 건설과장이 이점도 함께하는거창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행정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점도 대표는 “맘대로 하라. 대신 철거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라”고 통보. 오후 6시경 시내 곳곳 돌며 현수막 확인한 결과 10곳 중 7~8군데 철거. 7시 30분경 함께하는거창 이점도 대표, 김하주 사무차장, 푸른산내들

정연탁 대표가 군청 로비에서 현수막 시위 벌임. 9시경 건설과장, 담당 계장 및 주사 찾아와 면담. 시민단체 측의 거센 항의, 현수막은 이튿날 돌려받기로 함.

- 1월 30일 오전 읍사무소에서 현수막 돌려받음.



- 2월 5일 광안리해물탕에서 영호강 보존과 가동보공사 저지를 위한 확대대책회의 개최.

-함께하는거창, 푸른산내들,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전교조거창지회,

행언런거창지부 등에서 대표 및 실무자들 20명 가량 참석.

- 농민회 측과 전교조, 행언런에서 본격 결합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거창YMCA도 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혀옴.
- 본격적인 공사 재개 앞두고 폭넓은 군민홍보 펼치고자 로터리사진전 열기로 의결.
-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주 중 한번 더 모여 채우기로 함.
- 얼룩새코미꾸리 서식 실태 및 보전대책 용역의뢰 받은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의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생태계 정밀조사 및 보전방안'을 설 이전에 군에 제출, 29일 푸른산내들 이순정 간사에게 ppt 파일 보내옴.
- 보고서 말미에 얼룩새코미꾸리를 포획해 추평보 및 아림교(5교)로 이주시킨다는 계획 있음
- 영호강 보존과 가동보 저지를 위한 로터리 사진전



-2월 22일(토) 오후 2시경부터 시작.

-각 참가단체들(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YMCA, 행언런

- 거창지부, 전교조거창지회, 희봉위생노조, 적십자노조,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오전 8시~9시까지, 저녁 6~7시까지 한 시간 현수막 시위. 이후에는 캠프 사수.
- 3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이성호, 김연이, 이점도, 유영재, 박재영).
 - 3월 4일, 진주MBC에서 로터리 현장 취재.
 - 김명옥 건설과장 및 김현태 담당, 수시로 현장 들러 대화 시도. 주로 가동보 설치는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 호소, 정밀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 선정 위임안 제시와 고향의 강 사업 언급하며 ‘이번 가동보 설치를 양보해 주면 230억 원 규모의 고향의 강 사업에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100% 가까이 들어주겠다’고 함. 김현태 담당 주사가 김하주 사무차장에게 “다음주 중 고향의 강 사업 기초계획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함.
 - 3.14. 강원도 원주 가동보업체(LSG) 방문하려 했으니 기상악화로 무산. 영호강 보존 및 가동보 반대 전단지 4천 매 신문 삽지로 배포.
 - 3.16. 영호강 환경문화제 “영호강으로 봄맞이 가자!” 개최(피크타임에 140여 명 참가)
 - 11:00 가두행진: 거창읍로터리→농협군지부→하루방제과 사거리→2교 건너 공사현장에서 인간띠잇기→1교 밑 둔치에서 페인팅
 - 12:30 환경문화제:시낭송(염민기), 청소년댄스(아림고 크로커스), 노래(이정애, 임순란, 최윤희), 사물놀이(남산놀이마당), 난타(거창우문연)
 - 3.19. 오후 2시 거창문화원에서 열린 거창군 전체이장단회의 때 참석한 이장들에게 홍보전단 배부. 이날 이흥기 거창군수가 참석해 이장들 대상으로 특강했으나 이와 유사한 자리에서 평소 해왔던 가동보 이야기는 하지 않음. 이장단 대표가 회의 말미에 가동보를 언급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애쓴 군수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해 한 이장이 “그럼 가동보에 찬성한단 말인가?”라고 항의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라고 얼버무리는 해프닝 발생.
 - 3.22. 오전 11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군수와의 면담. 이민재, 이점도, 송만호, 유영재, 임영태, 김하주, 이순정. 군에서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참석. 군수는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 건설과장 역시 “계획된 공사를 이제와서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향의 강 사업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100% 가깝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힘. 중간에 군수의 섣대질로 군수와 이민재 선생과의 충돌 있었음.

-3.24.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점도, 유영재, 김홍섭, 김하주, 이순정, 김태민). 비상식적으로 다급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동보공사를 즉각 철회하고 철회가 어렵다면 공사재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 공사 재개시 이흥기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도록 모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 오후에 천막철거. 사진과 서명나무는 당분간 놔두기로 함.

-3.25. 재무과에서 담당자와 면담(김하주, 이순정). 재무과에서는 시설 보호, 환경미화, 일반인 시설이용 방해, 사용기간 제한 등의 이유로 사진 및 나무 철거를 요구. 우리는 “이후에 논의해 보겠으나, 철거를 당할지언정 자진해서 철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밝힘. 재무과의 한 직원, 면담 말미에 “이쪽저쪽에서 압박받는 우리의 입장 이해해 달라”고 토로.

-3.26. 오후 4:30분경 사진 철거 인부들 현장에 도착. 재무과와 통화해 말일까지 사진 전시하고 이후 자진철거기로 합의.

-3.27. 새정치민주연합 정영훈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거창 방문. 거창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이점도 대표와 김하주 사무차장 점심식사에 참석해 가동보공사의 진척상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 이후 현장방문.

-3.31. 사진 자진철거.

-4. 1. 서명나무 3그루, 2교 위 공사현장으로 옮김.



-4. 3. 이흥기 군수 사퇴, 출마선언

-4.10. 제2가동보 공사 재개. 시민단체 회원들 및 시민들, 몸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 막으며 사흘간 저지

- 영호강 보존 및 가동보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 결산모임

-6.12. 20:00 마산아구.

▷참가자:이민재,이성열,김홍섭,박수정,표정숙,이점도,정연탁,이순정,임영태,김태경,우병권,하동근,정은주,조영준,전병준,김하주

▷재정보고 후 적자분 659,000원, 이전 사업비에서 이월된 액수로 충당기로 합의

▷카카오톡 생태하천방 폐쇄기로 결정.

- 로타리 서명나무, 거창관광호텔 앞 강변 산책로에 2그루, 양항제 생태학습장에 1그루 옮겨 심음.

■ 학교앞 교도소 반대를 위한 활동

- 7.14일 저녁 8시 마산아구에서 김향란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실무자 간담회.(참석자: 김향란, 우성만, 이점도, 이상황, 김하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4명) 이 자리에서 김홍섭 거창YMCA 사무총장의 간단한 경과 보고 후 토론.

▶우성만: “대책위 꾸려야 할 때가 아닌가?”

▶김홍섭: “민관협의체 구성을 군수에게 분명히 요구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군을 압박해 달라. ... 찬성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다. 다수 주민이 찬성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

▶우성만: “바로 전면전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김홍섭: “함께하는거창은 홍보를 위주로 말고, 거창Y는 협의체 구성요구로 군을 압박하겠다. 우리끼리 먼저 합의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점도: “군에서도 가동보 때처럼 무식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군의 찬성 논리를 깰 수 있는 반대논리를 준비해 홍보전에 주력해야 한다.”

- 7. 31일 저녁 7:30분 거창읍로터리에서 교도소(구치소.감옥)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 발대식 개최.

300여 명의 학부모 등 참석. 10여 명의 공동위원장 추대. 원주 출신 여성 1인과 귀촌 여성 1인의 자유발언. 8.7일 읍사무소 앞에서 교도소 반대 문화제 예정됐으나 우천으로 취소됨.



- 8. 10일 07:00~22:00 서울남부구치소 및 원주교도소 견학.

군청 공무원(이상준 창조산업과장 및 유태정 교도소담당계장), 거창군 의원(김향란, 강철우, 형남현, 이흥희, 김종두),

언론인(류영수, 박재영), 시민단체 관계자(함께하는거창 이점도.김하주, 거창YMCA 김홍섭.하동근, 거창여성회 서미경) 등 20여 명 참가.

1.서울남부구치소: 현재 법원 및 검찰과는 10여 Km 떨어진 곳에 위치 (법조타운으로 묶어 법원.검찰과 교정시설이 함께 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사례.) 구치소와 교도소는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관리(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2013년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펴낸 <희망교정>에 실린 개청 예정 교도소, 구치소 지도에 ‘거창교도소’로 표기.이에 대해 질문하자 “‘교정시설’이라고 적어야 했는데 직원의 오타로 잘못 표기”라는 해명. 박재영 기자의 주민반대가 극심한데, 합의점을 찾거나 의견수렴할 의향 있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입장은 원계획 추진이지만 주민반대가 있으면 합의점 찾을 수도 있다”고 답변. 형남현 의원, 공식 행사 마치고 나오면서 “(법무부 관계자가) 군의 의지가 있으면 교정시설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언급.

2.원주교도소: 1979년 개청. 총 36,000평 규모, 500m 반경 내에 시청, 도서관 등 관공서 11개소, 초등학교 등 학교 3개소, 공원과 문화센터 소재. 정원 700명에 현재 수용인원 800여 명(기결수 90% 이상). 도시발전에 저해된다는 민원 있어서 교도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교도소 직원의 설명. 형남현 의원: “원주교도소는 당초 외곽에 세워졌다가 주위가 발전함에 따라 이전하게 된 경우다. 이에 비해 거창은 이미 학교와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세우려고 한다. 타 지역은 교도소를 도심에서 외곽으로 옮기는 추세인데, 거창은 이와 반대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군과 협의를 잘 해 설계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제야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니 당황스럽다”는 입장. 이점도 공동대표, “주민동의를 제대로 받아

서 해야 한다”고 주장.

3.원주YMCA 사무총장과의 면담

“당초 원주교도소가 생길 때는 주위가 허허벌판이었다. 도심이 발전함에 따라 이전요구가 대두되었다. 구도심이 원주교도소 때문에 죽어가는 형국이었다. 교도소 시설낙후 및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이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원주의 경우 아이들 교육상의 문제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이전요구를 강하게 했다. 아파트 가격하락 등은 크게 없으나 그래도 약간은 기피하는 분위기다.”

- 카카오톡 및 밴드에 방 개설. 페이스북 거창사랑 등을 통해 활발한 SNS 홍보활동 진행. 학부모 중심으로 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11일 오후 군청에서 열린 법무부 실시계획 인가 사전설명회에 학부모들 군청 진입시도하자 공무원들이 인간띠로 현관문을 막아섬. 실랑이 끝에 김은옥, 김경민 씨 참석.
- 9.2일 교도소 반대 범대위 출범 관련 함께하는거창 비상확대운영위원회 개최
 - 7월 30일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모임 발족식 이후 계속돼 온 요청.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 달라.” 학부모모임의 자체 동력의 누수(?)로 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 9월 9일 임시 확대운영위 회의에서 논의.
 - 9월 14일 정책팀 회의에서 10월 2일 출범시키기로 잠정 결정. 함께하는거창 등 시민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범대위에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

<비상확대운영위원회 회의록> 시간: 19:00, 장소: 광안리

- ▷윤 철: 학부모단체와의 유기적 조직화가 문제. 질서 부여해 치밀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이상황: 재정적 한계가 문제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시민단체의 결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 ▷우지호: 김은옥 대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나를 잘해나가고 있지만 범대위 형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범대위 구성 활동 자체가 평

크맘 조직 및 훈련과정이 될 수도 있다.

- ▷이성호: 조직화나 관망이나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 ▷윤 철: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교도소투쟁 혹은 범대위 출범 및 활동이다.
- ▷이점도: 학부모조직을 승계하는(살리는) 차원 및 학부모모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범대위를 꾸려야 한다. 거기에 시민단체 이름들을 내건다. 판이 커지면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을 키울 수도 있다.
- ▷김기오: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범대위 형태가 바람직할 듯하다. 즉, 서포터로서의 역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지원하는 형태
- ▷송만호: 범대위 출범 자체가 이미 조직 확대를 의미한다.
- ▷우지호: 학부모모임의 조직력 문제가 여러 번 노출되었다. 조직의 팀 해체를 문자 한 통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 ▷송만호: 비효율적 조직 체계가 문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범대위가 필요하다.
- ▷이점도: 함께하는거창이 공식적으로 결합하면(범대위가 구성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 ▷우지호: 공동대표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책실무팀은 학부모모임 팀을 승계하면 된다.
- ▷윤 철: 종적횡적 결합형태가 범대위이다. 예를 들어 면단위 서명작업 시 농민회와 여농의 결합 및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범대위가 출범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 ▷우지호: 범대위 출범 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천막농성도 고려하자.
- 9.15일 오전 10시 거창군의회회의 거창지원.지청 부지매입비 39억원 심의, 통과 반대 위해 항의방문. 방청 거부로 지하에서 TV로 시청. 오전 10:50분 아딸에 내걸린 거고31회 현수막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됨. 바로 군수실로 항의방문해 12시경 부군수 면담. 불법 현수막이라는 군의 주장에 현수막 철거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
- 9.18일 교도소를 반대하는 아빠부대 발대식 열림. 이곤섭 대표 추대.
- 9.26일 교도소 반대 기금마련 주막 개설. 이 자리에서 범대위 참가단체 모집.
- 9.29일 오전 9시 40여 명의 학부모 등이 거창교육지원청 항의방문. 김철성 교육장 면담한 자리에서 초등학교 담장에 내걸린 현수막 철거 공문 하달에 대해 강력히 항의. 오전 11시 교육지원청 3층 강당에서 학부



모들 회의. 등교거부 등을 논의한 끝에 강행하기로 가닥 잡음

- 10.5일 오후 6:30분 거창읍로터리에서 교도소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열림. 공동대표에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과 이청준 거창성당 주임신부. 상임대표에 표정숙 거창YMCA 이사장, 이점도 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 김은옥 교도소 반대 학부모모임 대표, 이곤섭 교도소반대 아빠부대 대표, 참여단체 대표는 상임위원 맡기로 함.
- 10.6일 08:00 버스 18대에 600명의 학부모, 학생 등 상경투쟁. 12:00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집회. 오후 2시경 범대위 대표단, 법무부 복지와장과 이명수 사무관 면담한 자리에서 교도소 반대 주민서명부 전달 및 요구 사항 제시.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3:30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항의집회. 신성범 의원, 현장 방문해 발언. “1,700억원이나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백지화 및 원점에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발언해 학부모들로부터 야유 받음. 발언 도중 위치 이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 오후 5시경 출발해 9시 넘어 거창 도착.
- 10.7일 오전 범대위 상임대표단과 이홍기 군수 상견례. 이 자리에서 거창군은 “현재 모든 교도소 업무는 중지된 상태”라고 밝힘. 그러나 오후 3시경 문화원 상설미홀에서 열린 거창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홍기 군수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범조타운 조성사업 설명. 김은옥 범대위 상임대표와 임영태 사무국장, 김하주 사무차장 문화원으로 긴급 출동. 김은옥 대표, 이홍기 군수 및 이환철 과장에게 강력 항의.
- 10. 8일. 오전 11시 박종훈 도교육감 거창교육청 방문. 3층 회의실에서 범대위 대표단 및 학부모들과 면담. 교육감에게 경과 보고 및 재발방지, 김칠성 교육장 직무정지 등 요구.

- 10.10일 저녁 7시 로터리에서 상경투쟁 및 등교거부운동 마무리집회 열림.
- 10.16일 저녁 6:30분 거창읍로터리에서 3만 서명부 불법명의로용 규탄 집회 열림.
- 10.20일. 오전 7시 버스 2대로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집회. 정문 앞에서 집단시위.
- 10.24일. 오전 9:30분 거창교육청 항의방문.
- 10월 28,30일. 학교운영위의 통영구치소 견학에 대해 거창교육청에서 항의집회. 30일 오후에는 박종훈 도교육감이 거창교육청 방문.
- 10.30일. 교도소를 반대하는 아빠부대 모임. 이 자리에서 로터리 천막농성 논의됨.
- 11.1,6,11일. 오전 9~12시 고령축산과 포교당 앞에서 교도소 반대 장날 선전전.
- 11.5일. 오후 4시께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 설치하려 했으나 거창군과 경찰 제지로 무산.
- 11.6일. 오전 7시께 천막 설치했으나 곧바로 철거 당함. 저녁 7:30분 거창문화원 상설미홀에서 교도소반대범대위 후원의 밤 음악회 개최.
- 11.9일. 시민단체 대표.실무자 상경투쟁(이점도, 이성열, 송만호, 하동근, 박수정, 장아람, 김하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오전 9시부터 교도소 반대 건흥산 등반대회 진행.
- 11.10일. 아빠부대 위주로 국회 상경투쟁.
- 11.14일. 오전 7시 버스 2대로 상경투쟁(70여 명). 아침 7시 로터리에서 출발→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 앞 도착→11시 30분 청운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12~1시 점심→오후 3~5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5시 출발해 9:50분께 거창 도착.
- 11.16일. 오후 3시부터 교량에서 피켓시위. 5시 로터리에 천막 설치
- 11.17일. 오전 6:30분 1차 천막사수. 11:00분 200명에 가까운 공무원 동원돼 강제 철거됨. 이후 군청 진입시도 과정에서 3명 부상. 류현덕 범대위 대변인은 머리를 다쳐 긴급후송. CT촬영 후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적십자병원에서 입원 중. 12시경 범대위 김은옥 상임대표와 임영태 사무국장이 이흥기 군수와 면담. 사태발생에 대한 사과



및 천막 원상복귀, 부상자 치료비 부담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함. 오후 2시께 천막 다시 설치.

- 11.20일. 11:0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재거창서울대동문 모임 기자회견.

- 11.21일. 09:00~11:00분, 시민단체 장날선전전.
- 11.26일. 16:0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작가회의 기자회견.
- 11.27일. 10:30, 19:30분. 복지관 2층에서 거창교도소 진실 바로알기 1,2차 주민설명회. 김은옥, 유영재, 강길원, 류현덕 패널로 나와 범조타운의 허구성, 불법대리서명 폭로, 입지선정의 문제점, 경제성 분석 등 설명.
- 11.29. 15:30~ 1교 밑 강변둔치에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 총궐기대회 개최.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성은.이청준 공동대표 인사말, 이곤섭 상임대표의 천막강제철거 규탄발언, 개사곡부르기, 류현덕.이소영 천막철거규탄선언, 거리행진.
- 12.3. BC800 앞에 천막 재설치.
- 12.16. 09:00~ 거창농산 앞에서 시민단체 장날선전전.
- 12.19일. 오후 5~10시 거창성당 지하강당에서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 주최로 송년의 밤 개최.
- 2015년 1월 20일 현재 거창읍로터리에서 천막농성 진행 중.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 6.4지방선거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 운동

- 5.16. 거창YMCA에서 6.4지방선거 대비 시민단체 대표 및 실무자 모임. 선거감시단 운영, 정책 제안(부록 참조) 등 논의. 사무국은 거창YMCA, 함께하는거창, 푸른산내들이 공동으로 꾸리기로 결정.
- 3.27. 지역언론 대표와의 간담회. 12:00, 거창복어.
 - 참가자: 윤구(아림신문), 소영태(서경신문), 민호현(거창신문), 하정용(거창군민신문), 박재영(거창NEWS IN) / 표정숙, 김홍섭, 하동근, 이점도, 김하주, 이순정, 유영재
 - 김홍섭 거창Y 사무총장의 모두발언 후 표정숙 거창Y 이사장이 성명서 낭독.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의 활동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청.
 - ▷오후에는 군수후보(3) 및 도의원후보(4) 사무실 방문해 성명서 및 정책제안 전달.
 - ▷선거 당일(6.4) 투·개표 참관인 활동.

■ 세월호 촛불문화제

-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전교조거창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행언련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들의 주도로 매주 금요일 저녁 개최
- 영상 상영, 공연, 자유발언, 양초만들기체험 등 진행.
- 평일에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피켓시위 진행 중.
- 작년 국정원 촛불문화제 때와는 달리 매 회 50여 명 가까이 꾸준히 동참
- 7.2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도보순례단 거창 방문. 8시부터 거창읍로터리에서 열린 임시 촛불문화제에 참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군민들 참석.
- 7.18일 19:30분 거창읍로터리에서 천주교 거창성당의 추모미사 열림.

■ 함께하는거창 2014 회원 워크숍



- 3.6(목) 19:30, 커피숍 MASSA
- 참석자: 이성호, 이점도, 송만호, 김기오, 이민재, 윤철, 박창구, 최광재, 유수상, 정은주, 최성식, 김하주, 장병욱, 김영수
- 최성식 전 사무국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뻔한 이야기”란 제목으로 발제. 10여 년 간의 시민운동 경험담 회고. 88고속도로 확장운동과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음. 활동가(실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민단체의 문제점 지적.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상근 활동가에 의해 조직의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지원자’ 개념 제시. “(잠재적 지원자들과의) 풍성한 인간관계 확립을 통해 함께하는거창의 활동 가능성 및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교육’의 중요성 강조. 정치(정당)와 시민운동(단체)의 새로운 관계 제시.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치발전은 없다. 현 사회는 자본(시장)이 정부를 장악한 구조이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 영역으로, 시민사회가 튼튼하면 정치도 건강해진다.”

- 이후 이성호 상임대표 주제로 자유토론.
 - 유수상: “조직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좁은 지역 안에서 연대를 끌어낼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연대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
 - 최광재: “지역에서 이슈 선점은 의미가 크다. 함께하는거창의 비전찾기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 박창구: “이제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한다. 군의회에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엄청나다. 한 사람만이라도 만들어내자.”
 - 이민재: “우리 함께하는거창에 대한 기대 및 지지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미지도 구축되었다. 이제는 세력화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 윤 철: “힘을 모으는 구심이 없으면 선거 자체가 안 된다. 동의 및 뜻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갈 사람은 준비를 하고, 거쳐야 할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송만호: “함께하는거창의 노쇠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 장병욱: “진정 군민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작은 권리찾기모임은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열었던 기타강좌 등도 확장해야 한다.”
 - 이점도: “늦게 함께하는거창에 합류해 그동안 많이 배웠다. 자원봉사(지원자) 없이는 함께하는거창도 언젠가 한계가 온다.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인맥지도가 중요하다. ○○○의 90년대식 인력동원은 낡은 방식이다. 회원 및 일반 군민들이 에너지를 충전받고 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 장학사업 관련 교사(2.4) 및 후원자(2.6), 후원자&멘토(4.3)와의 만남

- 2.4일(화) 17:00~, 송준섭, 박보건 선생 방문
 - 배은미, 이성열 선생 함양 진출 예정 => 전교조 집행부 회의 통해 새로운 멘토교사 및 수혜학생 선정할 필요.
 - ☞ “작년 멘토 교사들의 열정이 별로 안 보였다. 사업 취지 살리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

☞“성적순이 아니라 장학금과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거창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단순전달에 그치더라도 선생님을 통해 주는 것이 좋다. 함께하는 거창과 전교조의 공동사업이라는 의미 부여도 할 수 있다.”

☞“멘토교사는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교조 교사도 무방.”

- 2월 6일(목) 19:00~,원미정에서 “작은길” 후원자 모임
 - 간략한 재정보고(2013 총수입과 총지출, 잔액)
 - 3월 중 새로 멘토로 선정된 교사들과 자리 마련하기로 함.
- 4.3일 후원자, 멘토교사 모임
 - 4.3(목) 성언숏불갈비.
 - 참석자:정연탁, 오장호, 김영효, 노용관, 박홍준(후원자), 박보건, 노정임, 백기훈, 임영자(멘토), 김하주 사무차장 참석
 - 3월부터 2014 함께하는거창 장학사업 시작. 이날 모임은 구체적인 사업 논의보다는 일종의 상견례 성격.

■ 고향의 강 사업 실시설계 설명회 참석

- 7월 2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
- 거창YMCA 김홍섭 사무총장, 푸른산내들 이순정 간사, 함께하는거창 김하주 사무차장 참석.
- 당초 우려되었던 하상굴취 등의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음. 안장근 계장, “이번 고향의 강 사업은 저번 가동보공사 때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 최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고려해 실시설계를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언급.
- 송만호 정책위원장의 의견 제출서(하천에 무생명체료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말 것, 하천수목류.갈대류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모래 및 자갈로 이루어지는 사구형성을 유도할 것, 수생 및 추수구역의 다양한 비오톱을 보전하고 복원시킬 것, 자연적 하상의 재료는 가능한 한 변경시키지 말 것 등)를 12일 군청 김현태 담당주사에게 발송. “시민단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구체

적인 협의 시간을 내 달라”고 요구.

■ 영화 '명량' 회원번개

- 8월 13일 20:30, 고센시네마
- 총 24가족 참석(어른 41명, 아이 14명)
- 사업비: 31만6천원

■ 무상급식 중단사태에 따른 기자회견

-11월 10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

■ 군의원 해외연수 규탄 기자회견

-11월 11일 오후 2시 거창군의회 정문 앞

■ 2014 함께하는거창 회원 송년의 밤



-12.11일 저녁 7:30분, 광안리.

-올해는 회원만이 아니라 범대위 일꾼들을 초청, 연대의식 높이는 자리로 기획.

-65~70명 정도 참석.

-정연탁 시낭송, 이성호 상임대표 메시지 방송, 김은옥 범대위 상임대표 인사말, 임영태·김하주·우지호의 대금, 기타, 노래공연.

회원 소모임 활동

푸 른 숲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회장: 이기식, 산행대장: 백철우, 총무: 조재필)

■ 제163회 향적봉

- 1.날 짜 : 2014년 1월 1일
- 2.참가자 : 신용균, 이기식, 백철우, 송철주

■ 제164회 남덕유산

- 1.날 짜 : 1월 19일
- 2.참가자 : 이기식, 김영수, 송철주, 김학균, 백철우

■ 회원 단합대회

- 1.날 짜 : 2월 22일
- 2.장 소 : 용추사자연휴양림
- 3.참가자 : 신용균, 김영수, 윤철, 정현영, 권문상, 송민선, 이기식, 이영자, 백철우, 서대림, 이창희, 송철주, 김강철, 김하주

■ 제165회 정읍사 뒷산 내장산

- 1.날짜 : 3월 30일
- 2.참가자 : 김영수, 백철우

■ 제168회 보해산

- 1.날 짜 : 4월 20일
- 2.참 가 자 : 김영수, 신용균, 이기식, 백철우

3.산행코스 : 고대마을-안부사거리-보해산-외장포마을

4.산행시간 : 4시간

■ 제169회 황석산

1.날 짜 : 5월 19일

2.참 가 자 : 신용균, 이경배, 이기식, 이영자, 서대림, 백철우

3.산행코스 : 탁현마을-황석산-탁현마을

4.산행시간 : 4시간

■ 제170회 덕유산

1.날 짜 : 7월 13일

2.참 가 자 : 김영수, 이기식, 백철우

3.산행코스 : 송계사-백암봉-동엽령-안성

4.산행시간 : 6시간

■ 제171회 지리산

1.날 짜 : 10월 26일

2.참 가 자 : 이기식, 김영수, 신용균, 윤철, 권문상, 송만호, 백철우

3.산행코스 : 백사골 입구-화개재-삼도봉-임걸령-노고단-성삼재

4.산행시간 : 6시간30분



작은권리찾기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우리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김기오, 총무: 최광재)

■ 1월 21일, 거제굴구이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박창구, 이수구, 신용민, 장병욱, 김도연, 조인제, 최성식, 김하주
- 특별한 사업계획 논의는 없었음.



■ 2월 25일, 대성복집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박창구, 장상철, 장병욱, 최성식, 김하주
- 가동보 저지를 위한 로터리 사진전 당직 문제 논의. 매주 목요일 아침저녁 시위 및 천막 사수기로 결정.

■ 3월 25일, 광안리해물탕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박창구, 장상철, 김하주, 최성식
- 특별한 사업 논의는 없었음.

■ 4월 29일, 잔칫집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신용민, 박창구, 장상철, 정은주, 김하주
- 상동신시가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과속방지턱, 주차금지봉 시범설치 논의

■ 5월 27일

- 5월 월례회를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에서 주관한 '슬기로운 해법' 영화감상으로 대체

■ 6월 24일, 마산아구

- 참가자 : 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덕, 신용민, 변범식, 이수구, 최광재, 정은주, 조인제, 김하주
- 홈페이지 개편비를 모금을 통해 정산(비용 50만원에서 기존 함께하는거창 사무국 통장에 있는 작은권리 후원금 10만원 외에 당일 즉석에서 후원금 35만5천원 거둬).

■ 9월 2일, 광안리

- 사람사는세상 거창모임 소속 회원들이 대거 입회함.

■ 9월 30일, 대성복집

- 참가자 : 김기오, 장병욱, 장상철, 최광재, 박고희, 류현덕, 정은주, 김하주
-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대위 참가 논의. 월 분담금 납부 결의.

■ 10월 28일, 광안리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신용민, 정은주, 윤철, 조인제, 변범식, 류현덕, 배인주, 이점도, 이수구, (이곤섭)
- 범대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로터리 천막농성 논의. 범대위 월 분담금 납부 논의, 독려.

■ 11월 25일, 춘천닭갈비

- 참가자 : 김기오, 최광재, 박고희, 김종철, 이수구, 김도연, 정명희, 김하주
- ‘찾아라!작은권리!’ 접수된 안건 내용 공유. 정리해서 보도자료 내고, 군에 건의키로 함.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5년 사업 계획

함께하는게창이 2015년 해야 할 일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게창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보태 주십시오.

■ 사무국

- 사무차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사업과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게창이 해야 할 일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홍 보

- 회원들과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소식지의 수준을 높이고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 함께하는게창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밴드,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 회원 활동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큰 행사보다는 작더라도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내실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 교육연구소,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거창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와 입시교육 위주의 고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민하겠습니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

- 예산감시 활동, 가동보 및 고향의 강 사업 모니터링 실시 등을 꾸준히 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 학교앞 교도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범대위 활동에 동참하겠습니다.
-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 감시, 정보공개운동 등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 연대와 협력

- 일상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모임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사 위주의 일회성 연대를 넘어 일상적 사업 고민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30,300,000	인 건 비	급 여	16,800,000	
	후원금(사)	3,000,000		상 여 금	0	
	후원금(금)	3,120,000		퇴직적립금	1,2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사무유지비	복리후생비	1,587,600
	이자수익	5,000	건물관리비		3,6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700,000	
	잡 수 입	2,568,000	사무용품비		200,000	
	전년도 이월금	7,301,563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500,000
					통 신 비	700,000
					도서인쇄비	1,200,000
			사 업 비		발 송 비	800,000
					분 담 금	5,000,000
					사 업 비	6,000,000
					회원활동비	1,500,000
				회 의 비	1,000,000	
				출장연수비	300,00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3,701,963	
수입합계		46,294,563	지출합계		46,294,563	

2.장학사업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8,500,000	장 학 금	18,000,000
이자수익	1,500	부대비용	0
전년도 이월금	630,293	세금과 공과금	200
-		예 비 비	1,131,593
수입합계	19,131,793	지출합계	19,131,793

주1) 예산(안)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 실제 함께하는거창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4년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주3) 일반회계 중 후원금(원)은 교육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교조 거창지회가 설립·운영하는 인문학서점 “숲”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6만원 들어오는 후원금을 매달 말일께 ‘분담금’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4) 장학사업특별회계 중 수입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지출액은 수입액 규모에 맞추기 위해 월 5만원(145만원→150만원) 늘려서 잡았습니다.

부부

〈기자회견문〉

위천천살리기 로터리 사진전 및 천막농성을 마치며

**이홍기 거창군수는
가동보 공사를 다급하게 재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재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선거를 통해
군민동의를 얻으라**



이홍기 거창군수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위천천의 인공성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하천경관을 획일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반환경적인 예산낭비 하천사업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업이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서 위천천의 하천경관과 생태계가 회복되고 거창의 자랑꺼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매우 온건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뜻을 거창군과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전달코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1달간의 로터리에서 진행된 생명나무 서명리본 달기 운동과 위천천생태사진전, 그리고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이홍기 거창군수는 단 한 번도 천막을 찾아 이해를 구하거나, 가동보 설치에 관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민들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응대하며 공사현장의

멸종위기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생태계정밀조사를 발주하고 읍면 순방시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을 폄하하고 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등 공사강행을 위한 사전조치에만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가동보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이흥기 군수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정은 지자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그때 그때 입막음만 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왔다. 당초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실시설계는 단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일 뿐 예산확보 후 얼마든지 공사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터미널앞 1차 가동보를 설치할 당시 공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단점을 평가해서 2차, 3차 가동보 설치 여부를 함께 결정하자는 합의는 어느날 갑자기 중장비를 동원해서 강바닥을 파헤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몸으로 막는 것으로 파탄났다. 이흥기 군수의 진정성을 믿고 협의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매번 배반당했다. 최근 1달간의 로터리에서 기울인 진지하고 온건한 항의에도 군수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고, 엇그제 군수와의 면담에서도 4월내 공사를 끝내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가동보 설치공사는 지자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가동보가 필요에 따라 설치되기보다 지자체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2000만원 이상만 되어도 입찰을 거쳐야 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가동보설치 사업은 특허사업으로서 막대한 금액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발주되고 있다. 우리 거창도 3개의 가동보 공사가 모두 한 업체와 수의계약되었다. 또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토록 긴급하게 현 군수의 임기 내에 기어코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거창군이 다른 지자체에서와 같은 부정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일, 이대로 가동보 공사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강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환경적 예산낭비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흥기 거창군수는 가동보 설치공사를 당장 철회하라. 공사 자체를 철회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공사재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

루라. 지방선거에서 위천천 생태하천 공사를 두고 군민들에게 신임을 물은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토록 다급하게 공사를 재개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할 시, 우리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반환경적 예산낭비사업인 가동보 저지를 위해 더 광범위하게 군민들에게 소상히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호소할 것이다. 만일 공사를 기어코 재개할 시에는 거창의 시민사회 제 단체들과 함께 이흥기 거창군수가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3. 24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위천천만들기 주민대책위원회

거창구치소, 무엇이 문제인가?

범죄행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교훈은 모든 인간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수의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교정시설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거창구치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큼니다. 애초 거창군이 거창구치소를 법조타운으로 포장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쩍 유치하는 데서부터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실상 계획된 구치소의 규모가 전국 최대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거창구치소가 지속, 증축 등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들이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 동네인 거창군 스스로가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범죄율이 높아 수감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 그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정신으로 수감자들을 위한 시설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인근의 월별 신규 수감자는 30명 내외입니다. 결국 거창군의 대규모 구치소는 수백 명이 넘는 규모로 다른 도시 지역의 수감자들을 유입시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마산교도소, 대구화원교도소, 서울성동구치소, 전주교도소 등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 중인 대형교도소들입니다. 교도소와 구치소가 이전요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법상 출소자들의 출소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야간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과 출소자들의 시간대가 겹고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출소하자마자 찾는 곳이 인가 주변의 술집입니다. 당연히 지역 민심이 사나워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잡범죄자들의 경우 무연고 출소자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결국 통계적으로 일반인보다 출소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은 지역 생활 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른 숨겨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전국적으로 도심속 구치소, 교도소가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치소, 교도소가 지역 외곽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 또다시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경우는 지역주민 18만 명이 서명, 이전을 요구해도 법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지역 같은 곳에 한번 세워지면 이

전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민 전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특히 설립된 지역민이자 해당 사안과 밀접한 거창읍민의 동의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우수한 학군이 밀집한 지역에 구치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하지 않는 행정입니다. 성산마을 닭똥냄새 문제는 축산 폐업보상 정책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구치소 주민설명회를 정책토크쇼로 포장해서 연다고 합니다. 7월 23일 오후 7시 거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주민 모두의 참여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 이 문서는 거창군이 정책토크쇼로 포장한 교도소 주민설명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로 제작, 직접 시내를 돌며 배포한 것입니다.

8월 13일 거창군 보도자료

‘거창구치소 교정기관 견학’ 관련 참여 시민단체 입장

거창군이 지난 8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거창군의 일방적 주장이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한 거창군이 구치소 사업을 강행 추진하려는 알박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거창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1. “군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교정기관 소재로 인한 위해 여부 파악 서울 남부구치소·원주교도소 방문, 거창학부모 우려하는 사항 없음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는 거창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참여 시민단체는 이번 실사와 관련해 거창구치소 설립의 우려를 종식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은 실사라는 의견이다. 1회 실사를 통해 우려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구치소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치 서명부의 관치·대리서명 의혹,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잘못된 정보의 전달 등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핵심적 논쟁이 여전하다는 것을 밝힌다.

2. “이번 견학은 6·4 지방선거 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국내 사례 견학을 통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고 견학 취지를 밝히고 있다.

→ 거창구치소 설치관련 논쟁이 왜 소모적 논쟁인가?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사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 시민단체가 이번 견학에 동행하게 된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교도소 문제를 바로보고자 함이다. 거창구치소 설치사업의 협조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3.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모임’ 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반대 거창 학부모모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학부모모임은 ‘방문일정 및 내용 자체가 교도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설득용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학부모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답사를하기로 결정’해 참여하지 않게 됐었다고 주장했다.

4. “각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수많은 관공서·학교·공원·문화센터가 입지하고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관공서와 학교 등은 교도소가 들어선 이후 이전을 하게 됐다. 거창처럼 기존에 있는 학교 주위에 교도소가 들어선 것은 아니다. 원주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교도소가 들어선 이후 필요에 의해 학교가 들어선 것이지 기존에 학교가 있었다면 큰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했다.

5. “이후 진행된 인근 지역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가 도시 중심부에 있고 주변은 신도시로 개발되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학교가 소재하는 등 교도소 주변 전체가 주택지와 상가인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라며 도심지에 구치소가 들어서더라도 주민 안전과 생활불편 등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서울남부교도소 인근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 공사의 임대아파트로, 교도소 인근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들어서게 됐다. 그리고 가장 인접한 4, 6동의 경우 창문을 통해 교도소가 보이지 않도록 벽면을 배치했다.

원주교도소 인근 주택지의 경우도, 원주톨게이트와 시청이 이전하며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해 발전하게 됐다. 서울남부교도소와 원주교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교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택에 의해 입주한 경우로, 거창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6. “이번 견학 후 군 관계자는 “이번 견학에 반대하는 학부모모임에서 참석해 현장과 현실을 보았으면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일반적인 우려를 씻을 수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참으로 자의적이다. 애당초 촉박한 시간에 일방적 통보하고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특히 학부모모임에서는 교도소 방문 당일 ‘교정시설 실시계획인가 설명회’가 있어 법무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에게 반대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왜 이날을 잡았는가?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게 당연하

지 않은가?

거창군은 참여 시민단체와 일부 군의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무부 관계자의 말만 옮겨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실사 중 알게 된 다양한 정보는 외면한 채 거창군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였다. 이번 견학에서도 거창법조타운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역으로 돌아가 토론 등을 통하여 풀어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마치 견학에 참가한 일부 군의원과 시민단체가 거창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사실을 감추고 있다. 또한 이번 교정시설 견학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여론 조작에 앞장서고 있는 거창군에 강력히 경고한다. 차분히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 민의에 거스르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다.

2014년 8월 14일

견학에 참가한 시민단체 · 일부 참가 군의원 일동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거창여성회)

※ 질의답변으로 확인한 사실

참여 시민단체는 이번 교정시설 실사를 통해 지금까지 군의 주장과 다른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1. 교정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면 합천군 등 유치를 희망하는 타 군에 지원과 지청을 빼앗긴다?

: 법무부 김승만 복지과장은 ‘합천군에서 교정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형남현 의원의 질문에 “합천군에서 교정시설만 유치한다고 했을 때, (거창지원, 거창지청과) 같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거창군이 교정시설을 포기하면 거창지원과 거창지청이 옮겨가느냐’는 질문에도 “거창이 포기를 한다고 해도, 법원과 검찰청에서 가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대용감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용구치소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청도 있고 지원도 있어 거창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승만 복지과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합천으로 거창지청과 거창지원을 뺏길까봐 유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치소가 들어온다면 가지리 성산마을 법조타운 내에 꼭 있어야 하는가?

: 시민단체와 군의원의 연이은 질문을 받은 법무부 김승만 복지과장은 “행정 편의상 법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12Km, 20분 거리 정도면 가능하다”며 “법조타운에 법원과 검찰청, 교정시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정리하면 성산마을 일대 법원 검찰 등의 법률관계 인프라를 묶어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구치소는 관내 다른 곳에 위치해도 법적하자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사업변경 및 취소가 안 된다?

: 함께 동행한 한 기자가 ‘만약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합의점을 찾을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과장은 “이미 도시관리계획 상 교정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있어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가 재차 ‘도시관리계획 상 구역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 다시 구역설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으며 ‘검토한 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당시 참여 시민단체는 다양한 가변적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같이 인식했다.

**시기가 적절치 못했던 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진정한 “민의를 전당” 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http://gcngo.org	함께하는거창 보 도 자 료 (http://gcngo.org)	
보도협조일 2014. 2. 14(금)	연락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화 055-942-1117 팩스 055-943-1170 (담당:김하주 010-2036-7254)	
총 매 수 1쪽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함께하는거창**의 논평>

거창군의회 의원 정원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의 의원이 6박7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군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 일 앞둔 임기말에, 게다가 전국이 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때 이뤄진 것이라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번 해외연수는 군의회 자체 계획이 아니라 민주평통 거창지회 주관으로 평통자문위원으로 있는 군의원들이 다녀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해외연수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연수 자체가 비난 받을 점은 없다. 해외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우는 바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가 좋지 않았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고 했다. 군의원들은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 나아가 거창군의회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어야 했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의회가 군민들의 원성이 쏟아지는 민원의 전당이 아니라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한다.

2014. 2. 13.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성명서]

군민 목소리 외면하는 거창군의회는 각성하라!

- 지역사안 내팽개치고 해외연수 웬말이나!
- 거창군의회는 존재가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여 일 전 거창군의회는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백령도 방문 연수를 다녀와 언론의 술한 지적과 수많은 군민들의 비난 여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기미는커녕, 오늘은 6박8일 간의 일정으로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온다고 한다.

도대체 거창군의회는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거창군은 거창교도소 설치문제로 심각한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엇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도시 거창이 대.내외적으로 자랑해 온 무상급식 또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어제 타결된 한중FTA는 안 그래도 어려운 농업·농민들의 상황을 더욱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트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들을 내팽개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은 군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로터리 한켠에서, 전기도 끊긴 채 풍찬노숙하며 교도소 반대를 외치는 군민들의 절규가 정녕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거창군의회가 발의해 조례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해온 무상급식의 중단이 초래할 교육도시 거창의 몰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한중FTA가 초래할 농민들의 팍팍한 살림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번 해외연수 경비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황제투어 연수”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다. 군민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군민들의 분노가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는지 궁금하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거창군의회 정문 앞에 내걸린 글이다. 거창군의원들은 과연 자신이 군민과 함께하고 있는지,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길 바란다.

멀고먼 연수여행길 무사히 다녀오시라.

그러나 다녀온 이후의 무사안녕까지 기원해 드릴 순 없다.

연수 이후 쏟아질 여론의 못매 정도는 미리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4.11.11.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2014. 6. 04 지방선거

유권자가 제안하는 10대 분야 정책

『소통의 광장에서 주민으로부터 대안을!!
지방선거 유권자의 힘으로 바꿉니다!!』

희망자치 유권자 운동을 시작하며

2014년 6월 4일 “풀뿌리 지방자치”의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올랐지만 기대와 열정이 컸던 만큼 시행착오와 성장의 고통이 뒤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를 통한 거창의 지방자치는 고난과 영욕의 세월이었습니다. 군수 중도 사퇴에 따른 두 번의 보궐선거와 돈으로 치러진 선거, 권세를 이용한 부정과 부패, 민심을 외면하는 권력, 1당 독주체제의 폐쇄적 정치풍토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먼 길을 에둘러 오고 있지 않은지 냉철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느낄 수 있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상 선거기간처럼 주민들은 존중 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된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처럼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선거는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절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6·4 지방선거를 두고 거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를 정치의 의제로, 정치를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지역정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의제와 공약을 개발하여 발표함으로써 아래에서부터의 대안이 거창군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해 나갈 것입니다.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는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 거창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10대 분야 정책을 큰틀에서 만들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만 요란하고 선거가 끝나면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가 임기동안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주민 참여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당선자에게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정치의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당선자가 밝힌 공약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도와 성과 등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4년 임기 동안 계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6.4 지방선거를 두고 거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감시단을 두어 공정하고 깨끗하며,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비방 ·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선거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 · 개표 등에 있을지 모르는 부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투 · 개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 등에 관하여 많은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유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2014년 오늘.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는 일에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으로부터의 대안이 지역사회의 신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

군정협의회

1. 하천개발 범군민위원회 신설

- 10억 이상 규모의 하천공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진한다.
- 본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독립적 역할을 부여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민·관 동수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하천사업 시행시 하천개발 조례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2. 거창 지방자치단체 어르신 건강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내의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르신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인분야의 보건의료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보건소), 의료기관 노사, 요양원 노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건강위원회
-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여론 수렴
-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및 의료기관, 요양원 모니터링
-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계획 등 정책 수립
-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지역 어르신 건강사업 및 의료관련기관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군 지원 건강사업 및 군지원 의료기관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군정협의회 구성

- 지방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 가칭 거창군정협의회 구성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고 군민들이 직접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정책개발을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균형있는 군정 실현

법조타운

시민사회단체는 법조타운이 정치적 분쟁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단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정책수용과정이 결여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거창군의 추진 과정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 입지 결정과정, 절차와 홍보, 여론수렴과정, 타당성 등에 대한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주민과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법조타운 추진은 당초 홍보내용대로 법원, 검찰, 보호감찰소, 구치소 등으로 추진하며.
- 교도소는 향후 거창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교도소 유치여부를 원점에서 주민들과 함께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주민자치행정

1. 주민참여예산제

- 대형 프로젝트 못지않게 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사업도 중요하므로 예산에 적극 반영
-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방만한 운영을 막고 재정 건전성, 효율성 증대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06년 거창군이 입법예고까지 하고도 아직 제정하지 않고 있음

- 예·결산서 및 성과별 사업계획서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중장기지방재정 계획, 투융자심사 계획서 결과서를 공개
 - 거창군의 중장기적인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군청 홈페이지 예산공개 시스템에 검색 기능 추가
 - 일반 주민들이 예·결산서를 보는 게 아직 어렵다. 특정 사업명(검색어)을 검색하면 관련 예·결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추가

2. 청렴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
 - 거창군은 과거 2006년 ~ 2007년은 경남도 반부패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는, 전국 83개 군단위에서 거창군 75위, 경남도내에서는 가장 낮은 청렴도로 평가되었다
- 비단 평가항목에서 나타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느끼는 거창군의 청렴도는 거창군 정책결정권자, 간부공무원과 실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다
-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선 고위공무원부터 솔선 모범을 보이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주민의 의정활동 참여기회 제공

1. 의정활동 및 군정 간부 회의 인터넷 중계

- 주권자인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활성화
- 방청을 하지 않고는 군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을 알기 어려움
- 생업을 포기하고 방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주례회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 인터넷 중계(생중계, 녹화중계)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 2009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폐지되었음.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 가능
- 군정 간부회의 또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군민들의 알 권리와 군정내용을

- 알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실국원장회의 방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듯이
거창군에서도 주권자인 주민들의 군정 활동 참여 활성화
- ※ 월 1회 방송(군정 간부회의-월간업무계획)에서 점진적으로 주간업무계획까지 확대 시행 - 회의내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소년

1.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를 존중해 주는 교육환경 제공

- ☐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 제공
- ☐ 직업에 대한 부모 및 기성세대들의 잘못된(선입견) 인식에 대한 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 지역의 전문화된 진로상담 제공
- ☐ 청소년들만의 진로축제 제공

2. 지역의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 ☐ 야간자율학습 후 시내 지역도 심야버스 운영
- ☐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실행
- ☐ 성폭력,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강화책 마련

3. 청소년 문화 활동 예산지원 확충

- ☐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편성 및 지원확보
- ☐ 거창군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학교와 지역간의 참여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 ☐ 청소년들의 독립적 공간 확충
- ☐ 영화관 보조금 확대(청소년)

4. 청소년 시민으로 역할 제고 운영시스템 마련

- ☐ 지역청소년들이 정책 반영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마련

5. 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 ☐ 피해사례 구제 등에 대한 행정지원책 마련

-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 업체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업주(고용주) 등 관계 법령 교육 실시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생활복지

1. 장애인에 대한 지원

-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설치
 - 현재 삶의 쉼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외에 단기보호를 포함한 시설을 한두 군데 더 설치하여 선택 및 편의성 도모
- 장애인복지기관 건립
 - 장애인의 재활, 문화, 평생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
-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 서부경남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음
 - 장애아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 기회제공

2.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 확대
 - 지역 노인인구수 증가에 비례한 돌봄종합서비스 확대
- 전문직 퇴직자 활용 방안 모색
 - 건강한 전문직 퇴직자의 재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에 사회보험료 지원
 - 취업, 창업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보험료(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를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자활 및 탈 수급 촉진
- 지자체의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 지자체의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화 및 민간위탁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규모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 기대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정상화

- ☐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만 입주
-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력체계 확립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여성, 노인, 아동, 다문화 및 사회취약 계층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 주차난 해소 방안 모색 및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확대 설치

5.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 생활복지사가 아이들의 교육과 급식 등을 병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사회적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급식종사자 및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생태 · 환경

1. 거창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사업운영

- ☐ 생태해설사 및 문화 역사해설사 배치 운영
- ☐ 거창의 인문학 재원 관광객과 연결
- ☐ 지속적인 해설사 인력 교육 및 관리

2. 멸종위기종 및 생태자연 보호구역 지정

- ☐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을 멸종위기종 및 생태환경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농 업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 ☐ 제안이유
 - 자연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은 풍작이 되어도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이 고통 받고, 흉작이 되어도 해당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 하락

- 정부의 가격 지지정책인 수매비축사업은 수매량이 미미하고 수매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농사에 투여한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거창군 현황 및 제안

-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농업안정기금 및 해당 조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농업생산비 보장 등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으며, 기금 마련 이후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함

- 전국 곳곳의 유사 조례를 참고하여 현행 조례 개정보다는 별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국내산 농산물이 안정된 물량과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활성화 해야 함. 수매물량과 가격이 고정되면 계약재배 범위 내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것임.

2. 현장중심의 농업정책 마련

□ 제안이유

- 지역 농정을 공무원과 농업분야 전문가, 현장의 농민이 협치하여 기획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대를 창출해야 함. 자발적 역량강화와 농민의 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임

- 농정 전반의 시책 평가, 지역 역점사업 논의, 중소농 중심의 농가 지원사업 등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됨

□ 거창군 현황 및 제안

- 현재의 농정 시범사업인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행정과의 협치방법을 더욱 밀착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를 결합시켜 행정과 민간의 정례적인 농정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기획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전일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상시적인 농정 의제 발굴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협치기구의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거창군 농업정책의 발전과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3. 귀농인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제안이유

- 2013년 이미 1천가구 이상의 귀농가구 유치를 달성한 거창군은 이후 수량적 증대 보다는 이미 귀농한 가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과의 유대

강화, 그리고 재능발굴 등을 통해 더욱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유치 경쟁이 기존의 지역민과의 갈등 유발 증가,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상호 불신감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돕는 대책이 필요함

□ 거창군 현황 및 제언

－ 귀농인 영농정착자금 및 빈집 수리비 지원 등 기존의 지원정책은 유지 및 축소시키되, 이후 새롭게 제시해야 할 정책적 지원은 지역민과의 공동체 강화 및 유대감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귀농인과 지역민과 함께 도모하는 마을사업 및 공동체 사업 등을 공모하여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고, 귀농인의 농업생산 기반 조성과 아울러 재능의 발굴과 역할의 필요성을 활용하여 수입기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함 (일정급여를 보장해주는 마을간사제도 및 도우미제도 도입 및 활성화 필요)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생활과 교통

1.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 외곽지 주차장 확보로 시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
- － 시내 자전거 거치대 및 보관소 설치
- － 자전거 이용의 핵심인 시내 중심 차량 속도 제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마련

2. 군립공원 입장료 할인 및 무료

-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및 시설 입장료(사용료) 거창주민들에게 할인 및 무료화 실시

3. 학교체육관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동호회 위주로 이용되고 있어 어린이나 다른 주민들은 이용하기 어려움

- 이용시간대 조정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먼지역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상설화

4. 도서관 활용 활성화

- 공공도서관

도서관은 지역문화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다.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야 한다. 자료가 풍부해야 한다.

- 사서중심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노인층, 장애인, 다문화 등)
- 장서구입비의 실질적 집행
- 1인당 장서구입의 확대 및 실질적 집행
- 1개 관당 평균 사서직 확충방안 마련
- 지역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의 개방

2014 지방선거 정책제안

여 성

1. 양성평등, 여성인권 신장

- 양성평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성에 기초한 생산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 경주
-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성의 인권 신장
-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실행
-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여단체 확대 □ 여성 문화공간 마련

2. 육아환경 개선

- 출산장려 정책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
- 영·유아 보육 관련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 관공서 등 영·유아 실내놀이 공간 및 여성편의시설 확보
- 어린이 보호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문화경연 행사 진행
- 영·유아 및 가족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실행
 - 영·유아와 함께하는 생활 체육프로그램 등
- 공연장 등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유모차, 휠체어 비치 및 진입로 확충
 - 공연장에 휠체어 자리가 무대와 멀리 떨어져 이용에 불편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아는거장**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아는거장**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아는 거장**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아는거장**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아는거장**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아는거장**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아는거장**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개최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온라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 (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장**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아는 세상**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아는 세상**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아는 세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개장**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함께하는개장**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아는계정**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아는계정**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 칙

제36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

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7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미래**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미래**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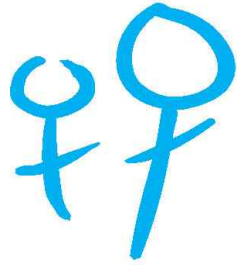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